

경인총련 출판식 부계마당

여학생 한마당

◆ 때 : 96년 5월 4일 이른 11시

◆ 곳 : 경희대학교 시청각실

경기 인천지구 여대생 대표자 일동

경인총련 출판식 부계마당

경기남부여대협 회장님 인사말
전여대협회장님 인사말
여학생운동에관하여
정신대 문제에 관하여
여대협은 투쟁속에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투쟁 결의문 1
투쟁 결의문 2
노래

**여대생 한마당의 성과를 이어
경인여대협 건립의 단초를 마련합시다!**

10만 경인지역 여학우 여러분, 그리고 20만 경인총련 학우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경인총련 출범식 안에서 여대생 한마당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경인지역 여대협이 없다는 이유로, 분산적으로 고민하던 우리 여학생운동은 많은 발전을 일궈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경인지역 여대생 한마당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적인 전망들을 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라는 50만 여학우의 투쟁으로 건설한 애국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올해는 기필코 전여대협을 강화 하는 길에 경인 지역 10만 여학우들이 선봉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의 이 자리 안에서 경인여대협의 건설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을 중심으로 투쟁할 때만 우리 여학생운동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 여대협은 지금 함께 투쟁하는 즐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함께 지난 여학생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의 모습속에서 구체적인 전망을 고민하고 있는 경기남부여대협은 이제야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투쟁하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 운

동이 마침내는 승리하고야 말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다지는 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투쟁하는 자리에서 10만 경인지역 여학우들과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한마당 안에서 집단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여학우의 지혜로 힘차게 경인여대협 건설의 전주곡을 울려 퍼지게 합시다.

반미 통일 진군 52년 5월 4일
3기 경기남부지구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건) 의장 허은

**경기·인천지역 10만 여학우들의
한마당을 축하드립니다**

5월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애국하는 청년 학생들에게는 투쟁의 신심을 높여 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5월에 경기·인천지역 여대생들이 한자리에서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여학우 대중들과 함께하는 여대협 한마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의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4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섯 분의 열사를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식민지 조국에서 진정한 4천만 민중의 목소리는 열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가슴아프고 분노 또한 치솟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운명은 당당히 맞서 투쟁할 때만이 개척할 수 있기에 뜨거운 청년 여학도의 심장으로 민족의 요구에 당당히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주도하는 여학우의 자긍심으로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과 주한 미군 철수 투쟁은 여대협 한마당에서부터 힘있게 결의를 하고 경인여대협 건설의 토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여대협 강화 그 한길에서 힘있게 투쟁하는 경기·인천지역 여대생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통일진군 52년 5월 2일
제 2기 전여대협 의장 김유경

여학생운동의 이해를 위하여

“ 요즘 어떻게 지내니? ”

너무 많이 하고 듣는 첫인사라서 식상하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 더 짜증나고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인사를 건넨 후 제대로 된 표정과 식상하지 않은 회답을 기대하기란 무척이나 힘들다는 사실이다.

“ 그저 그래 ”

하루하루가 혼한 농담처럼 ‘죽지못해 사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삶의 목적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생활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누가나 다 마찬가지로의 생활을 그만그만하게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회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를 떠나서는 자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의 대화에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단편적이거나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 한국사회는 문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반에 맞서 자신의 집을 지키려다 그 폭력에 목숨을 잃고, 전철과 거리마다 거지는 넘쳐나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1조 2천억이라는 돈으로 버젓이 권좌에 올라앉아 있고, 사회의 부조리에 분노하여 거리에 나선 대학생들 때려죽이는 모순된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민중들의 생활은 목적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생존’, ‘죽지 못해 사는 생활’ 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여성들에게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멸사와 자기비하를 자연스럽게 익혀온 여성들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억압된 상태이며, 모순에 찬 이 사

회 속에서 다시 여성들에게 가혹하게 가해지는 또다른 모순으로 인해 여성들의 삶은 더욱 목적을 상실한 '표류하는 삶'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럼, 우리 여학우들의 삶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여대생의 존재구명

먼저 여학우들의 현상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여대생은 여성으로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모순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라는 특권층에 있는 여대생은 그러한 모순을 첨예하게 느끼고 이러한 모순점들을 깨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에는, 예전보다 여대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나 대학이라는 공간이 여대생들에게 시집이나 잘 가기 위해 거쳐가는 곳이 아닌 자기실현의 공간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학이 사회문화적으로 진보적이기 때문에 자기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등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여대생들은 대부분이 여성으로서의 모순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풀어 가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노력이면 이러한 현실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집단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사고하여 신변잡기등 자신의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부와 취업에 치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상대적으로 남학우들에 비해서 낮은 정치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만을 보고 여학우의 본질을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학우들의 본질적 특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학생으로서 양심에 거슬리는 일은 하지 못하며 불의를 알게 되면 그 일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일어서고 새 것에 민감하다. 특히나 여학우는 모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긍정성 중에서 성실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성실성과 헌신성은 바로 다음 세대의 딸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여학우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해와 동정심이 많은 이유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학우들이 이러한 청년학생으로서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현상적으로는 이러한 본성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회적 연심

여자 팔자 뒤옹박 팔자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이 아니라 “여자”로 살아가야 했다. ‘여자팔자 두레박 팔자’ ‘여자는 손맛이 좋아야’ ‘시집만 잘 가면’ ‘똑똑한 여자는 피곤하다’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계집아이’의 역할을 강요받았고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로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성별로 평가되었다. 뿌리깊은 성차별 의식인 가부장제의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이러한 요구는 여성이 바로 한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커 나가기 보다는 인형이 되기를, 집안에 있기를, 그리고 여성을 열등하고 질투심이나 많은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봉건주의가 가져다 준 여성에 대한 생각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은폐되고 가리워져서 쉽사리 깨닫기 힘들게 되고 설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여성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격이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혼한 예로, 과내에서도 웬지 여자 선배보다는 남자 선배가 더 듬직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모임의 회장이나 리더 역할을 여학우들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미국의 지배에 의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의한 극도의 민중수탈의 과정을 밟아 왔다. 특히 여성노동에 대한 착취가 그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노동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여성들의 노동은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해 나갈 수 없는 조건에서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보조적’이라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차별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여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 속에서 가사노동은 아무런 사회적 대가도 받지 못하고 무보수로 해내야 한다. 차별임금과 무보수 가사노동으로 인해 자본가들은 헐값에 여성노동력을 구입하게 되고 여성들의 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각종 드라마 등을 보면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여유롭게 찾아가는 여성들이 보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자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대생의 취업 현실을 보면 이러한 사회현실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똑같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입사원서 받기도 어렵고 어렵게 받은 입사원서도 많은 자격요건으로 좌절되고 또 혹시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남성의 60% 밖에 안되는 월급, 카피, 커피심부름 등 단순노동 속에서 자신의 자아실현은 온데 간데 없고 자신의 후배가 상관인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식민지 여성은...

한국 여성문제는 의세의 지배와 필연적으로 결부되어진다. 문화면을 보더라도 해방 이후 밀려들었던 서구의 문화가 이제는 생활 깊숙히 침투하였고 특히나 성의 상품화의 물결에는 거의 대책이 없을 지경이다. 이는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매춘의 심화와 일본인 기생관광으로 인한 매춘여성의 확대 그리고 산업구조의 기형성으로 인한 향락산업의 발달이라는 우리의 잇고 싶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의 상품화는 이렇게 제국주의의 성침탈로 인해 더욱 극심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성상품화의 의식을 온 사회에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가지고 들어왔던 에이즈, 포르노, 마약 등의 범람은 의세문화가 어떻게 남한을 오염시키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사회에 퍼져있는 성의 상품화가 이제는 학내 성폭력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유발하고 있고 여대생들에게는 소비문화를 유포시켜 이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 외모 콤플렉스와 결합하여 서구의 미인을 따라잡기 위하여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를 강요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정치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인은 평균 2%로 세계 다른 나라의 20-30%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여성이 정치에 있어 주인이 되지도 못하

고 여성의 지위나 생활을 위한 정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외세의 식민 통치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미국은 식민지 민중에 대한 분열·이간정책으로 남녀분열정책 즉,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유포시켜 왔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서 단절되고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서는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여성들을 정치의 들러리로 동원하는 식으로 여성운동마저 심하게 왜곡시켜왔으며 이러한 속에서 여성의 정치의식을 낮출 수밖에 없었으며 여성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대생의 현상적인 모습과 본질적인 모습, 그리고 그러한 현상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여학우들의 처지와 조건들을 알아보고 이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여학우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그 원인들을 알아 나가면서 본질적 요구를 한데 모아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의 요구는 한 개인의 힘으로 풀여지지 않는다. 여학우들 자신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문제를 주동적으로 대하며 풀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나로 모아낼 때만이 그 해결의 방향과 방도가 보이는 것이고 또한 집단적인 힘으로 전개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여학우들의 본질적·집단적 문제를 담보해 내는 여학생운동이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우들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적 처지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고 이로부터 제기되는 여타의 억압적인 요소들을 타파해 내기 위해 집단적으로 투쟁해 나가는 운동이다. 즉, 성의 차별화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인 여학우들이 주민주체로 나서서, 남한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봉건사상과 성마저 상품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자주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남한 민중들의 요구를 목살하고 있는

미제와 그의 하수인인 지배세력 등 여학우들의 삶을 억압하는 요소들을 그 투쟁의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억압적인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여학우 하나하나가 자주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인간해방을 목표삼아 집단적으로 투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여학생운동인 것이다.

결국 여학생운동이라는 것은 여학우들의 자주적 요구를 그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더욱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미제국주의와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변혁운동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써 이 변혁운동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인간해방을 실현시켜나가는 것을 자기의 방향으로 갖는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여학생운동의 과제

봉건주의와 미제국주의에 의해 왜곡된 여성상 즉,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우리 여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사회적 요소들을 박살내고 여성이 자주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 내야 한다. 동시에 여성 스스로도 자신을 읊아매는 낡은 의식에서 벗어나 집단 속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한 자신과의 투쟁 또한 끊임없이 벌여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학생운동이 여학우 스스로가 삶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시기마다 풀어가는 우리의 투쟁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윤희하게 세워가는 '자주적 여성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주적 여성상은 자신의 삶을 윤희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제 요소를 타파하기 위해 집단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주적 여성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학생운동에 있어서의 과제들이 요구되어진다.

첫째, 여학우의 집단성을 높이자.

사람의 참된 가치 실현은 집단 속에서만 발양될 수 있다. 우리 여학우들의 개인주의화와 객체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단생활을 통해 서로의 고민의 수준

을 한층 깊이 하고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는 공동체적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봉건성을 타파하자.

먼저 여학우들은 자신의 삶속에서 역시 뿌리박혀 있는 봉건적인 요소들을 깨 나가야 할 것이다.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단지 성격상의 문제로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주입되어 온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여성상 때문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내 삶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가 주변의 퇴폐·향락문화 퇴치운동과 같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굳어져 있는 사회 제반의 모순을 없애고 우리 사회구성원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들도 더불어 진행해야 한다.

셋째, 민족의 운명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자.

일단 자주적 사상의식과 정치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 사회의 현실과 나의 삶은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나와 운명공동체인 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투쟁으로 일떠섰을 때만이 나의 운명 역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밝혀 나갈 수 있다.

넷째, 민중성과 계급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사회의 모순을 가장 첨예하게 느끼며 억압받고 꺾박받는 민중여성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만이 여대생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을 극복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에 실천으로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로 민족 자주권 회복하자!!!

2기 전여대협에서는 총회를 통해 전여대협 강화와 함께 정신대문제 완전해결 투쟁을 힘차게 결의했다. 경인지역 각 총여학생회에서도 역시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고민들을 경인여대협 건설을 통해 하나로 모아내고 나아가 전여대협으로의 통큰단결을 통해 정신대문제 완전해결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과제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대문제 완전해결과 민족자주권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투쟁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가?

1. 정신대 문제 대책 활동 경과

1970~80년대 국내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 단체들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제 식민지 지배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사에서 고통당한 여성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외화획득의 명분 아래 정부에 의해 조장되어왔던 관광산업으로 인해 한국여성들에게 자행되어지는 성폭력문제에 직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한국여성운동의 한 과제로 삼게 되었다.

처음에 국내에서 정신대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8년 4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의 “여성과 관광문화”라는 국제 세미나 였다. 이후 1990년 11월 16일, 연대하여 오던 18개 여성단체가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대협)를 발족시키면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운동은 급속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정대협

은 정신대 문제를 전 사회적인 문제로 폭로·선전하는 한편 한일 양 정부에게 정신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여러 방면으로 펼쳐나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대협이 활동의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시켰던 것은 정신대 할머니들의 용기있는 증언이었다. 그로 인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정신대의 만행과 잔학상이 폭로되기 시작했으며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연대활동은 일본의 전후 책임문제에 대한 추구와 철저한 진상규명운동을 강화해 나가야만 진행될 수가 있다. 과거 일본이 저질러 놓은 죄과도 청산하지 않은 채 또다른 군사 대국화의 야망을 아시아 각국을 향해 펼치려는 것은 평화라는 이름 아래 위장된 거대한 음모임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과거 정신대문제가 단순히 과거로 묻혀지며 끝난 사안이 아니라 그것이 일본의 군국주의로 부활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는 계기로도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신대 문제를 보면서 누구나 민족의 자주권이 빼앗긴 상황에서는 제국주의 자들의 지배정책에 의해 여성들은 성폭력의 희생물이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지금도 현대판 정신대인 기생관광에의 해 희생되는 여성들과 기지촌의 여성들이 미국·일본인들의 성적 노리개가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반세기가 지난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신대 문제는 분명히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과 여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민족이나 여성들이 이러한 치욕스러운 전례를 답습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 일본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민간기급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구 일본군의 국가적 범죄이고 전시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중대한 인권침해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본정부가 국제 인권법, 인도법에 따라서 피해자 개개인에

게 배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개인보상도 하지 않을 뿐더러 지원단체들과 당사자들의 강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사죄 한마디 없이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난 91년 미야자와 가이치 총리가 방한하기 직전 일본 방위청 도서관에서 군당국이 군대 위안부 문제를 기획·집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4년 8월 무라야마 총리 담화에서는 개인보상과 동떨어진 '평화우호 교류계획'을 내세웠다. 무라야마 총리는 개인보상 불가의 이유로 65년 한일협정으로 국가간의 끝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문제는 다른 전후배상 문제와 같이 국가간 조약으로 해결된 문제이므로 국제법상 외교상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일본의 관료우선의 논리와 전후 아시아의 독재정권들과 구축해 놓은 외교체제에 일절 손대지 않고 자신들의 결함 많은 외교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이다.

민간기금은 일본군의 위안부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민간기금을 논의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공식적으로 묵인되는 결과를 주는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의 범죄성에 대해 일본 국민 스스로가 이제는 위안부 문제가 끝났다는 식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대상이다. 그들은 역사의 피해자이며 증인으로 그들의 고통은 어떤 돈으로도 위로될 수 없다. 일본군에 의해 짓이겨진 이 주권과 명예는 일본 정부로부터 당당하게 사죄를 받아야 하고, 일본은 일본군에 의해 전쟁중에 일어난 조직적 강간에 대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하나 민간기금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반 민족적인 한국정부의 자세를 들 수 있다. 1993년 8월 4일 한국정부는 제2차 조사결과 발표와 고오노 담화에서 일본정부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였다고 평가하고 금후 외교문제화 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외교문제화 안한다는 한국정부의 방관자적 입장이 일본정부가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인을 준 결과가 되었을 뿐 아니라 유린당한 민족의 여성들에 대한 보상이나 문제해결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지 못하고 외교적인 부분만을 들어 굴욕적인 자세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 위로금은 너희 일본 거지에게나 줘라. 먼저 용서를 빌라. 너희의 사죄야말로 우리의 명예가 회복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배상하라.”

이것은 역사의 진실 속에서 다시는 할머니들이 당한 오욕의 역사를 당신의 딸들이, 손녀들이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절규인 것이다.

3.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 보고서 채택의 의미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 52 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여성 폭력 문제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된 쿠마라스와미 박사의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는 결의를 하였다. 쿠마라스와미 특별 보고관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서 일차적으로 가정 폭력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그리고 부속보고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출하였다. 쿠마라스와미 박사는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개념화하여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의 성격을 부각시켰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일본 정부의 완강한 반대와 방해 공작에 대한 큰 승리로 평가된다.

일본정부는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보고서 채택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회원국 상대를 로비 해 왔다. 53개 회원국 중 20여개국 외무장관 앞으로 특별 보고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그의 입장과 국제법적 해석을 비판하고 이 보고서를 기각할 것을 강권하며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부인하는 시대 착오적인 주장을 담은 50쪽짜리의 문건을 보내왔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로비는 각국으로부터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특별보고관의 명예에 도전하는 이례적이고 무례한 짓으로 비판을 받았다.

일본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다시 10짜리의 문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였다. 그 내용에는 그들의 법적 책임은 없고 단지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이라는 소위 '국민 기금'안으로서의 해결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파렴치한 대응은 여러 국가와 인권 단체들의 강력한 비판과 항의를 받았다. 한국정부는 비판과 함께 일본정부가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특별 보고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피해 당사국인 북한정부는 옹서버국의 입장에서 강력히 비판하는 문서배부와 발언을 했으며 중국 정부도 일본이 역사를 바로 인식하여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법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필리핀, 화란을 위시하여 10여개의 인권단체들이 국민기금을 반대하며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50여개 민간단체들이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국제연합체를 구성하여 성명을 발표하여 40-50명이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하는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이 국제연맹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대사관 문앞까지 갔지만 거절당했다. 이 시위를 취재하기 위해 왔던 보도진들 앞에서 거절 당한 국제연합체의 성명서를 읽고 기자회견을 갖기도 하였다.

일본정부는 그들의 목적이 관철되지 않자 차선책으로 보고서 채택을 위한 결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결의안은 끝내 확정되었고 세계 여성 단체 협의회들은 여성 운동을 승리로 이끈 한국 정대협 운동을 치하했으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자행되고 있는 무력 갈등 속의 성폭력,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유엔에 계속 제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는 찬사와 갈채를 보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 채택은 한국여성운동의 승리이며 세계 여성운동의 진일보에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마치 결의문이 이 보고서 자체의 환영을 약화시킨 것처럼 언론을 통해 왜곡된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 보고관의 업적을 환영하며 그의 보고서 전체를 주목한다는 것은 일본정부의 채택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우리 주장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제네바 대표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입장발표 내용은 각 단체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북한 대표들

도 정대협 대표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칭찬과 축하를 보냈다. 북한 대표가 정대협 대표에게 칭찬과 축하를 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명백히 일본의 정신대 문제에 대한 야비한 외교정책과 군국주의 부활음모에 대해 일격을 가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정신대 문제를 외면하며 비자주적인 외교를 벌여왔던 김영삼 정권을 궁지로 몰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느냐에 따라 정신대 문제는 완전 해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4. 우리들의 투쟁 방향

정신대 문제는 민족의 문제, 계급의 문제, 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대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히 일본에 대한 적개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본질들을 명확히 파악하여 총체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1> 투쟁의 의의

1)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정신대 문제는 일제의 지배 하에서의 가장 왜곡된 역사였음이 드러났다. 너무도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고 철저하게 왜곡되어진 상태에서 50년의 세월을 보내온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으며 정신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할 때 조국은 일제의 식민지 역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국은 미국의 간교한 식민지 지배 정책으로 지배당하고 있으며 우리 민중들은 아직도 미제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식민지 조국 하늘에서 우리는 왜곡된 정신대 역사를 투쟁으로 바로 잡는 것은 식민지 조국의 역사를 끝장내고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2) 제2의 정신대를 끝장내고 성의 침탈을 막아내는 길이다.

제국주의 지배 정책하에서는 여성들이 성폭력의 희생물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현대판 정신대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여성들이 성의 노리개가 되고 있다. 민족의 수난사는 여성의 수난사임을 깨닫고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2의 정신대를 끝장내고 성의 침탈을 막아내는 길이다.

3)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투쟁으로 민족 대단결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정신대 문제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통일 투쟁으로 남과 북이 정신대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우리 민족은 하나임을 보여주고 민족 대단결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2> 투쟁의 목표

- 1) 정신대 문제를 외면하고 민족의 요구를 무시하는 김영삼 정권을 타도하자.
- 2) 남북 공동 투쟁으로 민족 대단결 의식 고취하자.
- 3)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저지하고 일본이 UN의 권고안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며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 투쟁한다.

<3> 투쟁의 내용

1) 정신대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김영삼 정권 타도하자.

민족의 문제를 제일 우선시 한다던 취임 당시와는 다르게 민족의 자주권 문제와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정신대 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김영삼 정권을 우리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하면서 일본에게 정신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제하고 각 당사국마다 정권에서 나서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벌이는 국제적 여론에 못이겨 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김영삼 정권은 비주체적인 모습으로 외교에 임하고 있다. 민족의 자주권을 내팽개치고 국민의 요구마저도 무시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의심스러운 김영삼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정신대 문제 해결을 일본에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일본의 독도망언 등 동북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며 전세계가 정신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민간기금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찬미하고 아시아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행각을 반복하고 있는 일본의 행동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 작년 투쟁의 성과를 이어 받아 적극적이고 대중적인 항의 방문 투쟁등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3) 민족 자주권의 문제를 한민족인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자주 교류를 활성화하자.

분단 전에 민족이 당했던 아픔을 함께 투쟁으로 치료하고 전국민적인 문제로 확장시켜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민중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하여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투쟁하며 민족 대단결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에는 작년의 성과를 이어 받아 한우들에게 널리 알려내고 학우들과 함께 하는 대중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4) 일본의 민간인 위로금을 끝장내고 정신대 할머니를 책임지기 위한 대중적인 선전과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자.

유엔은 전쟁시 일본이 저지른 잔악하고 비인도적인 행각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피해국의 국제적인 연대 활동은 일본을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상임 이사국으로 가입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국민기금은 즉시 중단할 것에 대해 대중적으로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작년 많은 지역에서 정신대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의식화 작업을 해내면서 정신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모금이나 후원회를 조직화하여 구체적인 사람을 남기는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제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 나갈 우리 청년 학생이 우리 할머니들에게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중적으로 전개하자.

여대협은 투쟁속에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경기남부여대협에서 더 큰 향상을 위하여
경인지역 여대협 대표자협의회 건립을
제안합니다.**

자랑스런 투쟁의 기풍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인총련은 경기남부·경기동부·인부 이렇게 세 지구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대협이 있는 지구는 경기남부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남부 여대협이 어떻게 건설되었고, 지금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경인여대협은 왜 건설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경기남부 여대협이란 어떤 조직인가?

84년 학원자율화 이전 학도호국단 체제 하에서 여학생부는 여학생들의 주체성을 높이고 남녀평등한 민주사회 건설을 지향하기 보다는 그 자체가 가지는 체제순응적 한계 속에서 소비적이고 비주체적인 여학생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이후에 학원 자율화 조치로 여학생대표 자치기구인 총여학생회가 각 학교마다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여학생회는 여학생운동에 대한 전망과 내일을 계획하고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자치활동 공간은 넓을 수록 좋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속에서 총여학생회 활동은 이전에 여학생부 활동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경우가 나타났고, 이를 비판하며 청년 여학도로서의 여학생운동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당시 좀더 여학우들과 함께 하는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파쇼헌법 철폐, 군부독재 타도 등의 투쟁과 함께 여학생회 단위에서는 모성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족법 개정 투쟁 등 민주헌법에서 담겨져야 할 여성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군부독재 타도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86년 여름 권

인숙양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였고 많은 여학생회 간부들이 구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아있는 간부들의 결의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열심히 투쟁했다. 이 투쟁을 통해서 함께 하는 속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운동을 풀어나갈 수 있고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87년 대국민 항쟁을 거치면서 각계 각층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자기 운동에 대한 전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시기에서 여성운동 또한 한국 여성 단체 연합을 결성으로 지엽적이고 분산적인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6월 항쟁 기간 중 서울 지역에 각 학교 여대생 대표들이 미약한 여학생회 활동을 극복하고 올바른 여학생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모임을 벌여 나가면서 하반기에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를 건설하게 되었다. 실천적 경험의 축적이 미약한 관계로 조직의 내용이 미미했었으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톰보이 불매운동, 88올림픽을 맞아 에이즈 퇴치 운동과 미군철수운동 등이 반미자주화 투쟁의 관점 속에서 진행되었고 변혁운동의 하나로써 여성운동을 벌여나가는 모범을 전파하게 되었다. 이 에이즈 퇴치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89년 들불처럼 일어나던 통일투쟁 속에서 축전투쟁을 계기로 여학생운동은 질적 변화를 맞게 되는데 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운동에의 자기내용으로서 복무를 경험하게 되고 수원지역에서는 1만 6천 여학우들의 투쟁의 구심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굳센 의지를 모아 89년 9월 수원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준위가 발족하였다.

수여대협은 경기남부여대협의 어머니입니다.

그간 진행되었던 수많은 투쟁들... 체계의 안착화를 꾀하던 초반기에서 92년 보은 진관 무죄석방 투쟁에서부터 93년 잊을 수 없는 윤금이씨 사건을 통해 주한미군 범죄 근절과 미군철수 문제 점점 더 대중적이고 조직적으로 안착화되는 기지촌 활동 등 이러한 간고한 투쟁들과 성과들 중에서 아직도 여대협의 강화 발전은 많은 한계들이 있었다.

수여대협은 94년도에 경기남부 여대협으로 수원지역만의 투쟁을 벗어나 경기남부 지구를 묶어세우며 그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의 발전을 묶어세웠고 올바른 여성해방사상에 입각한 활동 방향들을 세우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간 경기남부 여대협 3년의 활동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한계점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여학생운동으로의 사상을 만들고 그 속에서의 사상통일을 이루어내기에는 많은 한계 지점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대협 강화의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내오지 못했었다. 학우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여학생회 간부 중심의 고민이 되었고 일관성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과물 없는 투쟁은 없는 법! 여대협 속에서 여학생회 간부들의 핵심일꾼으로서 단련을 가져오면서 여대협을 지켜왔고 여학생운동의 사상을 정립해 내고 있으며 현재는 경기남부 여대협 정책단을 꾸려내면서 책임성 있게 여대협을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다. 이후 경인여대협 건설에 있어서나 경기남부 여대협 강화에 있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과제로 보는 것은 대표자 회의의 안착화, 지역총련에서의 자리매김, 각 단위에서의 교양사업을 통해 대중적 조직으로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현재 제3기 켜를 맞고 있는 경기남부 여대협에는 경기대, 아주대, 중앙대, 성균관대, 한양대, 협성대, 안양대, 수원대 이렇게 8개 학교가 소속되어 있다. 각 학교 대표자님들을 중심으로 대표자 회의가 안착화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고 경기남부 여대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며 개개 여학우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경기남부 여대협 3기 의장님은 중앙대학교 총여학생회장님이다.

경기남부 여대협은 수원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지역을 포괄하면서 이 지역의 여학생운동을 책임지고자 하는 조직이며 누가 시켜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의 필요와 이해에 의해 결정되었고 여학생운동과 변혁운동의 사상통일을 기반으로 경인여대협 건설과 전여대협 강화, 한총련 강화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큰 하나를 위한 경인여대협 건설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여대협에서 그리고 여학생회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여학우 대중이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해 나감에 있어 사람의 소중함은 순간마다 깊이를 더해가는 값진 재산이듯 여학생회 일꾼들에게 있어 함께 여성자주화의 그날을 온몸으로 일구는

여학생회 일꾼이라면 어느 지역, 어느 대학을 가릴 것 없이 투쟁의 소중한 선물이 된다.

각 여학생회는 여학우의 자주성을 최대한 발현해 내는 여학우의 자치조직이며 학생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강화를 이루어내 여성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여성운동을 드높이 고양시켜 나가며 구국운동에 복무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이루어냄에 있어 고립됨은 많은 문제점들을 낳을 수 있겠다. 자기 단위에만 머물러 있을 때 정보의 협소함에서부터 힘의 분산 등 운동의 걸림들을 낳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우리 경인여대협에서는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고 그 속에서 매시기마다 우리 내용과 방향을 밝혀냄으로써 여학우들과 함께 하는 믿음직한 구심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해 나가며 집중된 힘을 발휘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자리잡고 있는 여성의 억압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단결만큼 강한 무기는 없다. 혼자 소리보다는 여럿의 소리가 크고 지속적이고 통일적인 운동으로써 여학우 대중의 믿음은 굳건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학생운동은 그 지위와 역할이 드높아지며 큰 힘을 형성할 때 여성의 자주화를 가로 막는 그 어떤 세력도 약해지고 마침내는 꼬리를 감추고 말 것이다.

우리는 전체 학생운동과 구국운동에서 제자리를 찾고 전체운동의 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경인여대협 건설을 통해 큰 파도를 만들어 내야 하겠다 !!

경인지역 10만 여학우의 힘으로 경인여대협을 건설하자!!

여학생운동은 학원에서 여학우들을 자주적인 주체로 내세우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학생운동의 부문계열운동이다.

우리는 지난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다양한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우리 운동에서 풍부화시켜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속에서 여대생의 자주적 대중조직 전여대협을 건설해 내었다. 건준위 6년의 자랑찬 역사를 받아안고 2기 출범을 맞이하는 50만 여학우의 투쟁하는 조직, 전여대협. 이제 전여대협 강화의 한길에 10만 경인 지역 여대생들은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통일단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대협은 투쟁 속에서 건설된 조직이다. 선배들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건설해 내었던 여대협을 우리는 이제 강화시켜내야 한다.

여대협은 여학생운동의 구심이 된다. 여대협 안에서 우리는 우리 운동인 여학생운동의 사상적인 통일을 이끌어내고, 조국의 통일과 여성의 자주화를 위해 힘찬 투쟁을 짜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동부, 인부, 남부의 세 지구가 각각 개별적으로 학교단위에서 열심히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전망을 고민해 왔을 것이다. 하지만 경인지역의 각 학교 여학생 조직의 대표자들이 한데 모여 여학생운동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한다면 자기단위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풍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자칫하면 오류에 빠지기 쉬운 방향성을 잡아가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실천에 있어서 단결만큼 우리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제 우리는 함께 여학생운동에 대한 전망을 고민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모습을 이끌

어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청년학생운동은 자기 지역에 대한 책임성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되고 있다. 그것이 여학생운동에게는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경인지역의 여대생들이 함께 고민해갈 때만이 우리는 지역을 담보하는 청년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1. 투쟁으로 일컫은 50만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인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여학생운동의 발전적 전망을 내오자!
2. 판결할 때 우리를 가로 막는 것은 없다. 경인여대협을 건설하고 경인지역의 여학생운동의 정형을 창출하여 힘차게 투쟁하자!!

반미 통일진군 52년 5월 4일

경/인/지/역/ 여/대/생/ 대/표/자 /일/동

**경인지역 여역우 힘으로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하자!!!!**

**외세에 짓밟혀온 식민의 역사 백년! 이제 민족 해방의 한길을 달려온 여성
전사들의 모범 따라 정신대 문제를 올해 안에 기필코 해결하자!!**

갑오 농민 전쟁에서부터 항무투, 빨치산, 5월 광주까지 그리고 6월 민중항쟁에 이르기 까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온 반쪽의 힘은 바로 여성들이었다. 간고한 외세의 탄압 속에서 가장 참혹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굴하지 않고 투쟁해 온 우리 선배 여성 전사들의 정신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 받아야 한다.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식민지 조국의 역사를 끝장 내어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이다. 우리 민족의 수난사는 여성의 수난사다. 지금 이 시대에 자행되고 있는 제 2의 정신대를 끝장내고 성의 침탈을 막아내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 정신대 문제의 완전 해결은 우리 시대의 과업이다.

우리 대에 정신대 문제를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회복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떨어지는 역사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경기 인천지역 여대생들은 구체적으로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일떠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신대 문제의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족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김영삼 정권을 타도하는 투쟁으로 펼쳐나설 것이다.

하나. 6월 12일 개최되는 임시국회에 정신대 문제의 해결의 의지를 내오도록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서한을 보내야 한다. 대대적인 서명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국회를 강제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나. 더이상 내조국 어머니가 치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정신대문제의 완전 해결로, 반외세 자주화 투쟁의 결의로, 민족의 자주를 회복하는 투쟁으로 달려가자!

더이상 정신대문제의 해결없는 자주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50년을 넘게 끌어온 이 투쟁을 이제는 끝장을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경인지역의 여대생들은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올해 기어이 정신대 할머니들의 치욕의 역사를 씻어내고 민족의 자주를 고취시킬 승고한 임무,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 투쟁으로 분연히 일떠설 것을 결의한다!

반미 통일진군 52년 5월 4일

경/기/인/천/지/역/ 여/대/생/ 대/표/자/일/동

여성 전사



1. 남성 전사 산 오를 때 함께 오른 며
2. 국은 일도 마 다 않고 해방을 위 해



분칠 주야 혼 려하던 여성 전사 가 흥을
전쟁 같은 투쟁전선에 선봉 어찌 서 흥을



변 모습 이 너 무도당당하여 라
너 무도의연하여 라



아 - - - 아 (아 - - - 아) 해방의 건달래 꽃.



그대는 자랑스런 해방조국의 딸 이어라 (딸 이어라)



은 가슴 열거지 고 민족의 영원안 고



혁명 의의기 불 태우는 흥을 만여성전 사

말들어 일어나라

김호철 글, 곡

어두웠던 밤 지나 새벽이 얼어붙은 땅 녹아 새싹이
우리는 이 땅의 노동자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

케케묵은 낡은 틀 - 싹뚝 잘라 버리고 말들어 일어나라 깨어라 이 땅
더 이상 - 벼랑 끝에 흔들릴 수는 없다 말들어 일어나라 깨어라 이 땅

의 노동자로 태어나 자랑스런 말로 태어나

사랑도 행 - 복도 다 때앗겨 버리고 참아왔던 그 시절 몇몇 해
고귀한 모성 보호 다 때앗겨 버리고 참아왔던 그 시절 몇몇 해

나가자 깨부수자 성차별 노동착취

뭉치자 투쟁이 다 - - 여성해방노동해방